

‘글로벌관광’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19일 개막

인·아웃·인트라바운드 전문박람회 22일까지 일산컨텍스 제2전시장 130여개 도시·250여 기관 등 참여 홍보관·컨퍼런스·공연·체험 다채



공동으로 주최하고 (주)한국전산업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로 9회를 맞아 국내

‘글로벌관광(Global+Local)’을 위한 인·아웃·인트라바운드 관광·여행 전문 박람회가 일산 컨텍스에서 열린다.

15일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KITS)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가 ‘국내 도시와 해외도시 그리고 여행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이란 주제로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일산 컨텍스 제2전시장 8홀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는 KITS조직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회의가

외 관광업계의 새로운 시장을 여는 비즈니스 장을 마련해 상호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외 130여개 지자체와 해외 도시 그리고 관광 관련 기업, 단체 등 200여개 기관과 450개 부스로 진행될 예정이다.

KITS는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외 홍보, 한국의 우수한 관광자원 홍보, 국제 관광도시 및 국가 홍보, 국내의 관광콘텐츠 간 관광 네트워크의 장 마련, 국내외 다채로운 여행 정보와 여행 체험의 장 마련, 스마트관광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 K-팝 아이돌 공연, 캐릭터 공연 등 다양한 주제와 공연으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KITS조직위원회 정창수 위원장은 “올

해 박람회 기간에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아웃바운드 여행사와 관련 협회 및 단체들과 다양한 교류의 장을 만들 예정”이라며 “미래관광시장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스마트관광을 더욱 확장해 미래관광시장을 대한민국이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KITS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아울러 KITS가 지향하는 관광, 여행 전문비즈니스 ‘In-Out-Intra bound’ 관광산업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알찬 프로그램들을 선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KITS는 국내 도시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여행, 관광박람회로서 국내 도시들의 관광 국제화에 필요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참여

한 해외 바이어와 국가 및 도시 등 상호간의 협력과 네트워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반 관광객들을 위한 아이돌 공연(키스오브라이프), 어린이 캐릭터 공연(캐리와친구들, 지니지니&강이강이 뮤지컬 갈라쇼), 한복패션쇼 등 다채로운 볼거리도 마련돼 있다.

동시행사로는 2024 대한민국 귀농귀촌 행복박람회가 열릴 예정이다. 올바른 귀농귀촌 문화 정착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귀농귀촌 정보를 얻어갈 수 있고 현장에 방문해 위케이션, 귀농귀촌 등 상담도 받아볼 수 있다.

박람회는 사전등록시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참가 및 참관 문의:02-3785-3905.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한국은행 지역본부, 금융공공기관 취업멘토링 호응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15일 1층 강당에서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지역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위한 8개 금융공공기관 합동 취업멘토링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감독원, 기술보증기금,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는 200여명에 달하는 지역 인재들이 참석해 최근에 입사한 금융공공기관 직원들과의 1대1 상담을 통해 취업 준비 과정 및 필요 역량 등과 관련된 정보를 얻었다.

멘토 역할을 맡은 8개 금융공공기관 현직자들도 이번 행사가 지역인재 육성 등에 마중물이 되는 뜻깊은 자리임에 크게 공감하고 최선을 다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지역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의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인재의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지난달 광주·전남 무역수지 11억4400만불 흑자

전년비 수출 8.7%·수입 7.1% 감소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올해 6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8.7% 감소한 49억 7100만불, 수입은 7.1% 감소한 38억 2700만불, 무역수지는 11억4400만불의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6월말 누계기준 전년동기대비 수출은 4.3% 증가했고, 수입도 1.9% 증가

해 무역수지는 79억4800만불 흑자를 보였다.

광주지역 6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9.8% 감소한 14억500만불, 수입은 10.1% 감소한 5억800만불로, 무역수지는 8억9700만불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수송장비(5.4%)·기계류(6.1%)·타이어(3.6%)가 증가했고, 반도체(21.6%)·가전제품(10.6%)은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0.8%)·고무(15.7%)·화공품(17.5%)·기계류(9.9%)가 증가했고, 가

전제품(46.4%)은 감소했다.

전남지역 6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8.3% 감소한 35억6600만불, 수입은 6.7% 감소한 33억1900만불로, 무역수지는 2억4700만불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화공품(6.7%)이 증가했고, 석유제품(14.0%)·철강제품(13.6%)·수송장비(24.9%)·기계류(60.2%)는 감소했다. 수입은 석유제품(19.1%)·철광(1.7%)이 증가했고, 원유(4.5%)·석탄(7.2%)·화공품(1.2%)이 감소했다.

최권범 기자

기아, 연식 변경 소형 SUV ‘2025 셀토스’ 출시

기아는 국내 대표 소형 SUV 셀토스의 연식 변경 모델인 ‘The 2025 셀토스’를 15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기아오로랜드 광주에서 생산하는 ‘The 2025 셀토스’는 고객들이 선호하는 편의 및 안전 사양을 기본화하고 상위 트림에만 있던 고급 사양을 중간 트림까지 확대 적용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아는 The 2025 셀토스에 △LED 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 △전·후방 주차거리 경고 △1열 열선 시트 △실내 소화기를 전 트림에 기본으로 탑재해 상품성을 한층 높였다.

또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을 장착해 고객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벨트라인에 크롬 몰딩을 적용해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그니처 트림부터 동승석 파워 시트를 추가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The 2025 셀토스는 신규 내장 컬러를 추가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디자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시그니처 트림에는 블랙 가죽 시트를, 그래비티 트림에는 미드나잇 그린 가죽 시트를 추가했다.

The 2025 셀토스의 판매 가격은 1.6 가솔린 터보 모델 △트렌디 2246만원 △프레스티지 2562만원 △시그니처 2750만원 △그래비티 2790만원 이고, 2.0 가솔린 모델 △트렌디 2147만원 △프레스티지 2463만원 △시그니처 2651만원 △그래비티 2691만원이다.

기아 관계자는 “The 2025 셀토스는 기존에 선택 사양으로만 추가할 수 있었던 고급 편의 사양을 트림별로 기본 적용하고 내장 디자인 컬러의 선택권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라며 “이번 셀토스를 통해 고객들이 보다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기아더(The) 2025 셀토스. 기아제공

광주은행, 주유비·교육비 할인 특화 카드 출시

오일모아·에듀플러스카드

광주은행은 15일 주유 및 교육 업종에 특화된 ‘오일모아카드’와 ‘에듀플러스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오일모아카드’는 특정 브랜드에만 국한되지 않고 6개 브랜드(GS칼텍스·SK에너지·S-OIL·HD현대오일뱅크·알뜰E1) 주유소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주유 업종에 특화된 카드로서, 리터당 최대 120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전월실적 3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이용시 리터당 80원 할인, 전월실적 7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이용시 리터당 100원 할인, 전월실적 100만원 이상 이용시 리터당 120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자동차정비가맹점(현대차 블루핸즈, 기아오토큐, 스피드메이트, 오토오아시스, T스테이션) 최대 1만원 캐시백 △생활영역(커피, 영화, OTT) 10%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학원’ 대상 업종으로는 보습학원, 입시 전문학원, 외국어학원, 컴퓨터학원, 독서



10% 캐시백 혜택도 제공한다.

‘에듀플러스카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교육 혜택을 골고루 담은 교육 업종에 특화된 카드로서 △학원 및 학습지가맹점 20% 캐시백 △대형서적·온라인서적·전자북 10% 캐시백 △온라인교육(인터넷강의) 및 EBS 교재 10% 캐시백 △생활영역(커피, 영화, OTT) 10%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학원’ 대상 업종으로는 보습학원, 입시 전문학원, 외국어학원, 컴퓨터학원, 독서

실, 예·체능계 학원, 초·중·고 교육기관 등이며, ‘학습지’ 대상점은 눈높이, 스스로, 빨간펜, 구몬, 씽크빅, 능률, 기탄, 밀크T, 훌런, 링크학습, 아이템플, 장원교육 등이 있다. 특히 신상품 2종은 각각 월 최대 5만원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유비나 교육비 지출이 많은 고객이라면 주목할 만하다.

카드 발급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광주은행 모바일웹(WEB) 뱅킹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고물가 시대에 교육비와 주유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신상품 2종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밀착형 상품 출시와 더불어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스마트인재개발원, ‘AI 취업전망’ 무료 특강

스마트인재개발원은 오는 24일 AI 개발자 비전·전망·취업시장과 관련된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AI개발자 시장현황 △취업준비의 완벽한 정석 △무료 취업 프로그램 소개 등 총 3가지 주제로 진행되며 각 강의는 LG전자 DX스쿨의 황해도 강

사, 전 광주 잡코리아 대표 임성식 강사, 인공지능사관학교(인사교)의 차현석 강사가 맡는다.

또 무료 특강에 참여하는 모든 청년에게 스마트인재개발원에서 제작, 취업 준비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된 ‘취업전략서’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온라인 강의는 24일 오후 2시부터

90여분 동안 진행되며 참여 신청은 스마트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사전 신청자들에게는 강의시작 1시간 전에 강의 URL이 발송된다.

차준섭 스마트인재원 이사장은 “이번 특강은 AI개발자와 취업 준비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을 보낼 것”이라며 “많은 청년이 이번 특강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고, 성공적인 취업을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